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교육 개선방안

임 병 응*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교육과 직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대화상대로는 친구가 가장 선택했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9.84%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 선택 시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학업 성적을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둘째, 많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의 시작 시기는 '중학교'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교육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6.56%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진로에 대해 많이 배우는 과목은 사회 영어, 국어, 과학, 수학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적성과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경로는 매스컴이 52.34%로 가장 높았고, 교사는 20.31%로 나타났다. '좋지 않은' 가정환경의 학생들의 경우 '교사로부터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넷째, 고등학교 진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는 부모님이 46.09%로 높게 나타났다. 진학하고 싶은 상급학교 수준으로는 대학교까지가 6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형편과 성적이 좋을수록 대학원 이상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유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70.31%로 가장 많았다.

주제어 : 진로, 직업, 진로교육, 직업교육

* 교신저자 : 임병응(mrl35@hanmail.net), 대전버드내중학교, 017-344-670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에 있고 행복한 삶은 일 특히 직업을 통하여 성취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여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진로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현대 사회를 지식 정보화 사회 혹은 탈공업화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는 지식, 기술, 정보 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직업의 변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좀 더 자기의 적성에 맞으며,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그에 맞는 준비와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다가올 시대에 순조롭게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요즘의 학생들은 꿈이 없다.’ 라는 말들을 자주 한다. 이는 학생들이 혼신의 노력 뒤에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는 좀 더 쉽고 편안한 것, 그리고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만을 좋아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조롭고 편파적인 사고방식으로 학생들은 많은 혼란과 좌절을 겪게 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얻지 못했거나 자신의 직업에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자아상실의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뒤늦게 자신의 진로를 교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성 있는 지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된다.

류창열(1994)은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준비·진로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의 진로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일을 하는데 집단행동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졸업 후에 자기가 처할 환경에 대비하도록 진로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을 일찍 발견하여 알맞은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바람직하고 자신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은 어떠한가?

- 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인식은 어떠한가?
- 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실태는 어떠한가?
- 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나. 진로지도(Career Guidance)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 하며 선택된 직업에 적응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이정근, 1984).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1학년 학생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교육의 개념

진로 교육은 1970년대 초 미국의 Marland가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미국을 비롯하여 각 국에서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김충기를 위시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진로교육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충기(2001)는 진로교육을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며 직업적성교육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인간교육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동준(1996)은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진로교육은 진로에 관한 모든 교육 활동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한 개인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각 개인의 자아실현에 공헌해야 된다는 교육이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행복한 개인으로서 생산적인 사회 성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서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폭넓게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과 소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지도와 진로지도를 통합하는 교육의 관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진로교육이다. 즉 진로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지속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 현실은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극히 부족한 채 지식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입시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 지도가 진로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환경에 알맞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직장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진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도록 진로교육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을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생들이 진학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진로교육이라고 정의를 한다

2. 진로교육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써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대 이후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직업세계 또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이미 직업의 종류만도 2만 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도 학생들이 보다 현명하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그러나 현재 우리의 학교에 있어서의 진로교육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오로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입시교육만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진로교육이 단순히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오다가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것이다.

또한 강길훈(2006)은 진로교육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

지만, 그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가지게 되는 직업은 이후에 가지게 되는 직업에 고정되거나 대학 진학시 학과 선택은 장래의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여러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개인적 측면과 국가 및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석민 외 4인, 1986).

가. 개인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사회적 변화에 못지않게 개인의 교육적 요구도 점차로 변해왔다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 1) 진로교육은 일과 직업세계에 관련된 올바른 자아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 2) 진로교육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체계적인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 진로교육은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 4) 진로교육은 인생의 목표설정과 직업선택 시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국가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1) 진로교육을 통해 사회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의 균형된 개발을 기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개발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 시키고 적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2) 진로교육은 과열과외 및 재수생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 능력에 따르기보다는 학력 위주의 임금 체계 학벌을 사회적 간판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등은 모두 일과 직업에 대한 우리사회의 오도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결국 입시 열풍과 재수생 문제를 야기 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해왔다고 여겨진다

3) 진로교육은 특히 무직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일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능과 가치관 및 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진로교육은 직업지도는 물론 일에 대한 기초 소양을 길러주므로 청소년들이 취업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주어 실업 문제·범죄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방지하는 기능도 된다

4) 진로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적 직업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오늘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시장이 혼란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일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 같은 건전한 직업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보수의 조그마한 차이에도 직장을 자주 옮기고 직업의 수행과정에서도 직업인의 책임의식이 없이 일을 하게 된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은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갖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개인에게 직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진로교육을 행하는 목적은 아니다 진로교육은 개인에게 의미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생산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 문

제 해결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개발하고 공급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1학년 280명이었으며 표집 방법은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를 임의 표집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280(100%)부가 모두 회수되었으나 그 중 24부는 응답이 무성의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변인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변인별 분포

구 분	서구		대덕구	
	남	여	남	여
1학년	60	66	70	60
계	126		130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참고 문헌과 문지혜(1999), 엄주윤(2002) 등의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영역과 문항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의 영역과 문항

영역	문항수
진로에 대한 인식	7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7
직업에 대한 인식	7
진학결정	3
개인 신상 문제	6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

으며, 조사 대상자의 변인에 따라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교육, 직업, 진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진로에 대한 인식

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끔 생각한다'가 53.13%, '항상 생각한다'가 39.84%로 비교적 많았으며,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0.78%로 상당히 적게 나왔다. 이 결과는 문지혜(1999)와 엄주윤(2002)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3>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

사례수(백분율)

구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가끔 생각하고 있다	항상 생각하고 있다	계	평균	χ^2 (df)
성별	남	2 (1.54)	8 (6.15)	72 (55.38)	48 (36.92)	130 (50.78)	3.28	2.76 (3)
	여	-	8 (6.35)	64 (50.79)	54 (42.86)	126 (49.22)	3.37	
생활 정도	상	-	4 (33.33)	4 (33.33)	4 (33.33)	12 (4.69)	3.00	34.57* (6)
	중	-	8 (3.77)	116 (54.72)	88 (41.51)	212 (82.81)	3.38	
	하	2 (6.25)	4 (12.5)	16 (50.0)	10 (31.25)	32 (12.5)	3.06	
학교 성적	상	-	-	28 (41.18)	40 (58.82)	68 (26.56)	3.59	28.79* (6)
	중	-	8 (6.56)	66 (54.1)	48 (39.34)	122 (47.66)	3.33	
	하	2 (3.03)	8 (12.12)	42 (63.64)	14 (21.21)	66 (25.78)	3.03	
계		2 (0.78)	16 (6.25)	136 (53.13)	102 (39.84)	256 (100.0)	3.25	

* p<.05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활 정도별로는 생활형편이 '중간' 정도인 가정의 학생들이 형편이 매우 좋거나 안 좋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진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는 생활 형편이 매우 좋은 경우 별 어려움이 없이 생활을 하다 보

니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거나 부모의 생각이나 기대에 따라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 형편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는 자신의 진로와 장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뚜렷한 목표를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임하고 공부도 계획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성적도 좋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적성이나 소질에 대한 생각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대한 생각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대해 '가끔 생각한다'가 58.59%, '항상 생각한다'가 31.25%로 많았다.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엄주원(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은 10.16%로 비교적 적었다.

<표 4> 적성이나 소질에 대한 생각

사례수(백분율)

구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가끔 생각하고 있다	항상 생각하고 있다	계	평균	χ^2 (df)
성별	남	2 (1.54)	12 (9.23)	76 (58.46)	40 (30.77)	130 (50.78)	3.18	1.96 (3)
	여	-	12 (9.52)	74 (58.73)	40 (31.75)	126 (49.22)	3.22	
생활 정도	상	-	4 (33.33)	4 (33.33)	4 (33.33)	12 (4.69)	3.00	20.69* (6)
	중	2 (0.94)	12 (5.66)	126 (59.43)	72 (33.96)	212 (82.81)	3.26	
	하	-	8 (25.0)	20 (62.5)	4 (12.5)	32 (12.5)	2.88	
학교 성적	상	-	2 (2.94)	34 (50.0)	32 (47.06)	68 (26.56)	3.44	23.35* (6)
	중	2 (1.64)	10 (8.2)	72 (59.02)	38 (31.15)	122 (47.66)	3.20	
	하	-	12 (18.18)	44 (66.67)	10 (15.15)	66 (25.78)	2.97	
계		2 (0.78)	24 (9.38)	150 (58.59)	80 (31.25)	256 (100.0)	3.14	

* $p < .05$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5$).

생활 정도별로는 생활형편이 '중간' 정도인 가정의 학생들이 형편이 매우 좋거나 안 좋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학교 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성적이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알게 되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파악하게 되므로 학교 성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생각하는 태도는 학교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가 49.22%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별로 모르고 계신다'가 35.16%, '매우 잘 알고 계신다'가 11.72%, '전혀 모르고 계신다'가 3.90%로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0.94%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 39.06%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형편이 좋은 집의 부모님일수록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성적별로는 학생의 성적이 중간이상인 경우의 부모님이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보다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

사례수(백분율)

구 분		전혀 모르고 계신다	별로 모르고 계신다	대체로 잘 알고 계신다	매우 잘 알고 계신다	계	평균	χ^2 (df)
성별	남	4 (3.08)	46 (35.38)	70 (53.85)	10 (7.69)	130 (50.78)	2.66	5.27 (3)
	여	6 (4.76)	44 (34.92)	56 (44.44)	20 (15.87)	126 (49.22)	2.71	
생활정도	상	-	2 (16.67)	10 (83.33)	-	12 (4.69)	2.83	9.22 (6)
	중	8 (3.77)	72 (33.96)	104 (49.06)	28 (13.21)	212 (82.81)	2.72	
	하	2 (6.25)	16 (50.0)	12 (37.5)	2 (6.25)	32 (12.5)	2.44	
학교성적	상	4 (5.88)	20 (29.41)	34 (50.0)	10 (14.71)	68 (26.56)	2.74	10.07 (6)
	중	2 (1.64)	40 (32.79)	68 (55.74)	12 (9.84)	122 (47.66)	2.74	
	하	4 (6.06)	30 (45.45)	24 (36.36)	8 (12.12)	66 (25.78)	2.55	
계		10 (3.90)	90 (35.16)	126 (49.22)	30 (11.72)	256 (100.0)	2.67	

* $p < .05$

라. 미래에 관한 대화 상대

학생들이 미래에 관해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대상은 '친구' 49.22%, '어머니' 31.25%, '아버지' 5.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생님과 미래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학생은 3.13%로 매우 적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에 관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여학생은 친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학교 성적은 '중간' 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는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적성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도 많은 대화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정도 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6> 미래에 관한 대화 상대

사례수(백분율)

구 분		아버지	어머니	친구	선생님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10 (7.69)	40 (30.77)	54 (41.54)	4 (3.08)	22 (8.59)	130 (50.78)	14.23* (4)
	여	4 (3.17)	40 (31.75)	72 (57.14)	4 (3.17)	6 (2.34)	126 (49.22)	
생활 정도	상	-	4 (33.33)	6 (50.0)	-	2 (0.78)	12 (4.69)	5.06 (8)
	중	14 (6.6)	66 (31.13)	104 (49.06)	6 (2.83)	22 (8.59)	212 (82.81)	
	하	-	10 (31.25)	16 (50.0)	2 (6.25)	4 (12.5)	32 (12.5)	
학교 성적	상	6 (8.82)	28 (41.18)	26 (38.24)	4 (5.88)	4 (1.56)	68 (26.56)	21.52* (8)
	중	4 (3.28)	40 (32.79)	56 (45.9)	4 (3.28)	18 (7.03)	122 (47.66)	
	하	4 (6.06)	12 (18.18)	44 (66.67)	-	6 (2.34)	66 (25.78)	
계		14 (5.47)	80 (31.25)	126 (49.22)	8 (3.13)	28 (10.94)	256 (100.0)	

* $p < .05$

마. 진로에 대한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정도

학교 선생님과 진로에 대한 상담 정도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지 않는 학생이 39.84%로 가장 많았고, 한 학기에 한번 정도 26.69%, 일 년에 한번 14.85%, 한 달에 한번 13.28% 순으로 나타났다. 엄주윤(200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7> 진로에 대한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정도

사례수(백분율)

구 분		상담 하지 않는다	일 년에 한번 정도	한 학기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	χ^2 (df)
성별	남	30 (23.08)	10 (7.69)	54 (41.54)	32 (24.62)	4 (3.08)	130 (50.78)	66.39* (4)
	여	72 (57.14)	28 (22.22)	22 (17.46)	2 (1.59)	2 (1.59)	126 (49.22)	
생활 정도	상	6 (50.0)	-	2 (16.67)	4 (33.33)	-	12 (4.69)	21.44* (8)
	중	84 (39.62)	36 (16.98)	66 (31.13)	20 (9.43)	6 (2.83)	212 (82.81)	
	하	12 (37.5)	2 (6.25)	8 (25.0)	10 (31.25)	-	32 (12.5)	
학교 성적	상	22 (32.35)	10 (14.71)	22 (32.35)	14 (20.59)	-	68 (26.56)	25.64* (8)
	중	54 (44.26)	20 (16.39)	32 (26.23)	16 (13.11)	-	122 (47.66)	
	하	26 (39.39)	8 (12.12)	22 (33.33)	4 (6.06)	6 (9.09)	66 (25.78)	
계		102 (39.84)	38 (14.85)	76 (29.69)	34 (13.28)	6 (2.34)	256 (100.0)	

* p<.05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해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으나 이 또한 학급 담임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 정도별로는 생활 정도 '상'과 '하'인 학생들이 '중'인 학생들 보다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교 성적별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와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반영되어진 것이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또한 선생님에게 잘 인식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성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 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진로 선택 시 장애가 되는 요인

학생들이 장래 진로를 선택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진로를 선택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학업 성적이 75.78%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의 기대와 경제 사정이 8.59%, 신체적 조건이 3.13%로 나왔다. 성별과 생활정도, 학교성적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진로 선택 시 장애가 되는 요인

구 분		학업 성적	신체적 조건	부모님 기대	경제 사정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96 (73.85)	4 (3.08)	10 (7.69)	12 (9.23)	8 (6.15)	130 (50.78)	3.92 (4)
	여	98 (77.78)	4 (3.17)	12 (9.52)	10 (7.94)	2 (1.59)	126 (49.22)	
생활도	상	8 (66.67)	-	2 (16.67)	-	2 (16.67)	12 (4.69)	13.39 (8)
	중	160 (75.47)	8 (3.77)	20 (9.43)	18 (8.49)	6 (2.83)	212 (82.81)	
	하	26 (81.25)	-	-	4 (12.5)	2 (6.25)	32 (12.5)	
학교성적	상	48 (70.59)	6 (8.82)	4 (5.88)	8 (11.76)	2 (2.94)	68 (26.56)	14.09 (8)
	중	96 (78.69)	-	12 (9.84)	8 (6.56)	6 (4.92)	122 (47.66)	
	하	50 (75.76)	2 (3.03)	6 (9.09)	6 (9.09)	2 (3.03)	66 (25.78)	
계		194 (75.78)	8 (3.13)	22 (8.59)	22 (8.59)	10 (3.91)	256 (100.0)	

* p<.05

2. 진로교육 실태

가. 진로에 대해 배우는 과목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을 살펴본 결과 사회 시간이 15.78%로 가장 많았으며, 국어 14.06%, 영어 13.13%, 과학 11.72%, 수학 10.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악과 미술, 한문 시간에 진로에 관해 배운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97%, 2.81%, 1.41%로 매우 적었다.

<표 9> 진로에 대해 배우는 과목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사회	202	15.78
국어	180	14.06
영어	168	13.13
과학	150	11.72
수학	134	10.47
도덕	96	7.50
기술·가정	90	7.03
컴퓨터	76	5.94
체육	52	4.06
음악	38	2.97
미술	36	2.81
한문	18	1.41
진로와 직업	12	0.94
기타	28	2.19
계	1,280	100.0

아쉬운 점은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선택과목으로 등장한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로에 대해 배우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재량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교과목에서는 수업 시간 중 진로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진로 선택에 필요한 자료 제공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선택 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76.56%로 높게 나왔으며,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23.44%로 적었다. 이는 엄주운(2002)의 연구에서는 73.1%의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선택 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표 10> 진로 선택에 필요한 자료 제공

사례수(백분율)

구 분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계	평균	χ^2 (df)
성별	남	28 (21.54)	82 (63.08)	20 (15.38)	-	130 (50.78)	1.94	12.49* (3)
	여	30 (23.81)	56 (44.44)	38 (30.16)	2 (1.59)	126 (49.22)	2.10	
계		58 (22.66)	138 (53.90)	58 (22.66)	2 (0.78)	256 (100.0)	2.00	

* $p < .05$

다. 교과 수업이 장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 수업이 장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이 55.47%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학생 44.53%로 나타났다.

생활정도 별로는 가정형편이 좋은 가정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장래 직업 선택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성별과 학교 성적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 교과목이 장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사례수(백분율)

구 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됨	계	평균	χ^2 (df)
성별	남	8 (6.15)	44 33.85	70 (53.85)	8 (6.15)	130 (50.78)	2.60	3.25 (3)
	여	8 (6.35)	54 (42.86)	54 (42.86)	10 (7.94)	126 (49.22)	2.52	
생활도	상	4 (33.33)	-	8 (66.67)	-	12 (4.69)	3.00	28.08* (6)
	중	8 (3.77)	84 (39.62)	106 (50.0)	14 (6.6)	212 (82.81)	2.59	
	하	4 (12.5)	14 (43.75)	10 (31.25)	4 (12.5)	32 (12.5)	2.44	
학교성적	상	2 (2.94)	30 (44.12)	34 (50.0)	2 (2.94)	68 (26.56)	2.53	7.65 (6)
	중	8 (6.56)	44 (36.07)	62 (50.82)	8 (6.56)	122 (47.66)	2.57	
	하	6 (9.09)	24 (36.36)	28 (42.42)	8 (12.12)	66 (25.78)	2.58	
계		16 (6.25)	98 (38.28)	124 (48.44)	18 (7.03)	256 (100.0)	2.60	

* p<.05

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생각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성적에 따라 실시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40.63%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28.91%, 그리고 적성과 흥미에 맞게 21.09%, 부모의 희망에 따라 0.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이나 부모의 희망에 따라 진로지도를 실시한다는 응답 41.41%보다 학생의 희망이나 적성 흥미에 따라 진로지도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50%를 보여 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2>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생각

사례수(백분율)

구 분		성적에 따라	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적성, 흥미에 맞게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58 (44.62)	2 (1.54)	34 (26.15)	28 (21.54)	8 (6.15)	130 (50.78)	5.52 (4)
	여	46 (36.51)	-	40 (31.75)	26 (20.63)	14 (11.11)	126 (49.22)	
계		104 (40.63)	2 (0.78)	74 (28.91)	54 (21.09)	22 (8.59)	256 (100.0)	

* p<.05

3. 직업에 대한 인식

가. 장래 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본 시기

장래 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본 시기는 ‘중학교’가 46.87%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36.72%, ‘고등학교’ 16.41% 순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장래 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본 시기

사례수(백분율)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χ^2 (df)
성별	남	46 (35.38)	58 (44.62)	26 (20.0)	130 (50.78)	2.49 (2)
	여	48 (38.1)	62 (49.21)	16 (12.7)	126 (49.22)	
생활 정도	상	8 (6.67)	4 (3.33)	-	12 (4.69)	12.82* (4)
	중	78 (36.79)	104 (49.06)	30 (14.15)	212 (82.81)	
	하	8 (25.0)	12 (37.5)	12 (37.5)	32 (12.5)	
학교 성적	상	26 (38.24)	34 (50.0)	8 (11.76)	68 (26.56)	7.80 (4)
	중	46 (37.7)	60 (49.18)	16 (13.11)	122 (47.66)	
	하	22 (33.33)	26 (39.39)	18 (27.27)	66 (25.78)	
계		94 (36.72)	120 (46.87)	42 (16.41)	256 (100.0)	

* p<.05

성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처음 생각해 본 학생들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때 처음 생각해 본 학생들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 때까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2~3년 정도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생각도 더 일찍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생활정도별로는 생활정도가 ‘좋은’ 가정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생활형편이 ‘중간’ 정도인 가정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장래 직업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빨리 판단하여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판단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야 자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성적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나.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가 87.5%로, '그렇지 않다' 12.5%보다 매우 많았다. 특히 직업의 귀천이 매우 심하다는 의견이 26.56%가 나와 학생들에게 직업관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14> 직업의 귀천에 대한 생각

사례수(백분율)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심하다	계	평균	χ^2 (df)
성별	남	6 (4.62)	14 (10.77)	68 (52.31)	42 (32.31)	130 (50.78)	3.12	8.94* (3)
	여	2 (1.59)	10 (7.94)	88 (69.84)	26 (20.63)	126 (49.22)	3.10	
생활 정도	상	-	-	6 (50.0)	6 (50.0)	12 (4.69)	3.50	6.33 (6)
	중	8 (3.77)	20 (9.43)	132 (62.26)	52 (24.53)	212 (82.81)	3.08	
	하	-	4 (12.5)	18 (56.25)	10 (31.25)	32 (12.5)	3.19	
학교 성적	상	-	4 (5.88)	44 (64.71)	20 (29.41)	68 (26.56)	3.24	15.71* (6)
	중	8 (6.56)	14 (11.48)	64 (52.46)	36 (29.51)	122 (47.66)	3.05	
	하	-	6 (9.09)	48 (72.73)	12 (18.18)	66 (25.78)	3.09	
계		8 (3.13)	24 (9.38)	156 (60.94)	68 (26.56)	256 (100.0)	(3.17)	

* $p<.05$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생활정도별로는 형편이 좋은 집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직업에 귀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 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직업의 귀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다. 직업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인

직업을 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는 '적성과 능력이 52.34%로 가장 많았고, 보수 15.63%, 안정성 14.06%로 나타났으며, 사회에 대한 봉사는 0.78%로 매우 적었다. 문지혜(1999)의 연구에서도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적성과 능력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는 응답이 77.2%로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표 15> 직업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인

사례수(백분율)

구분		적성과 흥미	능력	안전성	사회에 대한 봉사	발전 가능성	명예	보수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58 (44.62)	8 (6.15)	18 (13.85)	2 (1.54)	10 (7.69)	6 (4.62)	24 (18.46)	4 (3.08)	130 (50.78)	18.09* (8)
	여	76 (60.32)	12 (9.52)	18 (14.29)	-	2 (1.59)	2 (1.59)	16 (12.7)	-	126 (49.22)	
생활 정도	상	8 (66.67)	2 (16.67)	-	-	-	-	2 (16.67)	-	12 (4.69)	9.69 (16)
	중	106 (50.0)	16 (7.55)	32 (15.09)	2 (0.94)	12 (5.66)	8 (3.77)	32 (15.09)	4 (0.94)	212 (82.81)	
	하	20 (62.5)	2 (6.25)	4 (12.5)	-	-	-	6 (18.75)	-	32 (12.5)	
학교 성적	상	32 (47.06)	10 (14.71)	8 (11.76)	-	6 (8.82)	2 (2.94)	8 (11.76)	2 (2.94)	68 (26.56)	25.75 (16)
	중	66 (54.1)	4 (3.28)	16 (13.11)	2 (1.64)	6 (4.92)	4 (3.28)	22 (18.03)	2 (1.64)	122 (47.66)	
	하	36 (54.55)	6 (9.09)	12 (18.18)	-	-	2 (3.03)	10 (15.15)	-	66 (25.78)	
계		134 (52.34)	20 (7.81)	36 (14.06)	2 (0.78)	12 (4.69)	8 (3.13)	40 (15.63)	4 (1.56)	256 (100.0)	

* p<.05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발전가능성과 보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적성과 흥미,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를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이 남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의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정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라. 직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직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매스컴'이 52.34%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 20.31%, '선배나 친구' 13.28%, '부모와 가족' 7.03% 순이며, 인터넷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학생은 3.91%로 가장 적었다.

<표 16> 직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사례수(백분율)

구 분		매스컴	학교 선생님	부모 가족	선배나 친구	인터넷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66 (50.77)	32 (24.62)	8 (6.15)	14 (10.77)	4 (4.62)	6 (3.08)	130 (50.78)	9.36 (6)
	여	68 (53.97)	20 (15.87)	10 (7.94)	20 (15.87)	6 (1.59)	2 (4.76)	126 (49.22)	
생활 정도	상	12 (100.0)	-	-	-	-	-	12 (4.69)	42.45* (12)
	중	114 (53.77)	42 (19.81)	12 (5.66)	28 (13.21)	8 (3.77)	8 (3.77)	212 (82.81)	
	하	8 (25.0)	10 (31.25)	6 (18.75)	6 (18.75)	2 (6.25)	-	32 (12.5)	
학교 성적	상	32 (47.06)	12 (17.65)	4 (5.88)	10 (14.7)	6 (8.82)	4 (5.88)	68 (26.56)	27.58* (12)
	중	68 (55.74)	18 (14.75)	12 (9.84)	18 (14.75)	2 (1.64)	4 (3.28)	122 (47.66)	
	하	34 (51.52)	22 (33.33)	2 (3.03)	6 (9.09)	2 (3.03)	-	66 (25.78)	
계		134 (52.34)	52 (20.31)	18 (7.03)	34 (13.28)	10 (3.91)	8 (3.13)	256 (100.0)	

* p<.05

엄주윤(200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학교 선생님에게서 얻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에 5.0%로 가장 적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에게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20.3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정도 별로는 생활형편이 '좋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매스컴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학생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선배나 친구에게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는 성적이 좋은 학생은 스스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정보를 얻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선생님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마. 희망하는 직업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살펴본 결과는 <표 17>와 같다.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2년도에 전국 고등학교 학생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합해서 나타난 것이고 남녀를 따로 분리해서 조사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사회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희망하는 직업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	120	15.63	연구원	18	2.34
공무원	55	7.16	컴퓨터 관련	18	2.34
연예인	44	5.73	예술가	16	2.08
의사	44	5.73	정치인	16	2.08
디자이너	44	5.73	기타	13	1.69
사업가	34	4.44	오락, 문화관련	12	1.56
경찰	34	4.44	수의사	10	1.30
건축가	30	3.91	금융, 보험관련	10	1.30
회사원	30	3.91	종교인	8	1.04
요리사	30	3.91	미용사	8	1.04
언론인	26	3.39	스튜어디스	6	0.78
약사	24	3.13	작가	4	0.52
교수	22	2.86	운동선수	4	0.52
법조인	22	2.86	항공기 조종사	4	0.52
공학자	22	2.86	만화가	2	0.26
군인	18	2.34	부동산, 임대관련	2	0.26
외교관	18	2.34	합 계	768	100.0

4. 진학 실태

가. 고등학교 진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고등학교 진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부모님' 46.09%로 가장 많았고, '담임선생님' 21.88%, '친구' 2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과 담당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3.13%로 매우 적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교 진학에 부모님과 친구가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에

서 높게 나왔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담임선생님이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에서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생활정도별로는 가정 형편이 '중간' 정도인 가정의 학생이 다른 학생들 보다 친구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담임선생님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고 성적인 '중간' 정도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18> 고등학교 진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사례수(백분율)

구 분		부모님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친구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58 (44.62)	38 (29.23)	4 (3.08)	16 (12.31)	14 (10.77)	130 (50.78)	19.28* (4)
	여	60 (47.62)	18 (14.29)	4 (3.17)	38 (30.16)	6 (4.76)	126 (49.22)	
생활 정도	상	4 (33.33)	4 (33.33)	-	-	4 (33.33)	12 (4.69)	24.87* (8)
	중	102 (48.11)	40 (18.87)	6 (2.83)	52 (24.53)	12 (5.66)	212 (82.81)	
	하	12 (37.5)	12 (37.5)	2 (6.25)	2 (6.25)	4 (12.5)	32 (12.5)	
학교 성적	상	32 (47.06)	8 (11.76)	4 (5.88)	14 (20.59)	10 (14.71)	68 (26.56)	(20).35* (8)
	중	62 (50.82)	28 (22.95)	-	26 (21.31)	6 (4.92)	122 (47.66)	
	하	24 (36.36)	(20) (30.3)	4 (6.06)	14 (21.21)	4 (6.06)	66 (25.78)	
계		118 (46.09)	56 (21.88)	8 (3.13)	54 (21.09)	(20) (7.81)	256 (100.0)	

* $p<.05$

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70.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진학'을 위해가 10.94%, '부모님이 원하시므로'가 10.94%로 같았으며, '친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4.69% 적게 나타났다.

<표 19>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

사례수(백분율)

구 분		부모님이 원하여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여	대학 진학을 위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16 (12.31)	6 (4.62)	12 (9.23)	92 (70.77)	4 (3.08)	130 (50.78)	1.17 (4)
	여	12 (9.52)	6 (4.76)	16 (12.7)	88 (69.84)	4 (3.17)	126 (49.22)	
생활 정도	상	-	-	2 (16.67)	10 (83.33)	-	12 (4.69)	7.22 (8)
	중	22 (10.38)	10 (4.72)	24 (11.32)	148 (69.81)	8 (3.77)	212 (82.81)	
	하	6 (18.75)	2 (6.25)	2 (6.25)	22 (68.75)	-	32 (12.5)	
학교 성적	상	2 (2.94)	4 (5.88)	20 (29.41)	40 (58.82)	2 (2.94)	68 (26.56)	68.33* (8)
	중	6 (4.92)	4 (3.28)	4 (3.28)	104 (85.25)	4 (3.28)	122 (47.66)	
	하	20 (30.3)	4 (6.06)	4 (6.06)	36 (54.55)	2 (3.03)	66 (25.78)	
계		28 (10.94)	12 (4.69)	28 (10.94)	180 (70.31)	8 (3.13)	256 (100.0)	

* p<.05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부모님이 원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응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대학진학을 위해서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응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성별과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직업 적성, 소질 등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직업의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 수명과 주기가 현재 보다도 많이 짧아질 것이다 즉 평생을 하나의 직업 또는 직장에서 종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두 번은 직업이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학교 급별로 상호 연계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에 대한 대화상대로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선생님은 매우 낮다는 점과 진로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이 일 년에 한번 미만인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과, 설혹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라 해도 일과 중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일선학교에 주어진 재량활동 시간을 적절히 이용하여 진로지도와 교육에 적절한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모색해 학생들이 원할 때 어느 교사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학생은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장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진로교육은 학과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로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활용하여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나, 별도의 진로정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쉽고 부담 없이 진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고,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들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함에 있어 학생들의 특성보다는 성적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믿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현장 견학이나 상급학교 방문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특성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하였으며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직장을 옮기겠다고 응답한 반면 직업을 통한 사회봉사에 의미를 부여한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동천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학생들 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올바른 진로교육을 통한 노동의 가치와 직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학생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직업윤리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미래의 직업 선택 기준으로 적성과 능력을 중시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진로 결정에 매스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진로를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진학 결정에 있어 많은 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이상의 진학을 희망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 선택 시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학업

성적이 가장 높게 나온 점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주로 성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것에서 현재의 사회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이름 있는 대학만이 좋은 직업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좋은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유일하게 진로교육에 대한 과정으로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있으나 선택과목이고 단지 '이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진로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수'로 끝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의 진학 자료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수의 방법은 교육청별로 모든 교원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법과 또는 각 학교의 교장 교감과 각 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킨 후 학교별 자체 전달연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격연수에 일정시간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 현재 일부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는 상담교사를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진로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를 양성하여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 일반대학)에서는 교직과정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각 급 학교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진로교육 자료실을 설치하여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이나 교사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진로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인사를 진로교육 활동에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체 등을 현장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길훈(2006). 진로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4, 59-92.
-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 **심리척도 핸드북(1), (2)**. 학지사.
- 김주현(2005).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원(2003).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실태 조사 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2001).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 류창열(1995). **직업-기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 문지혜(1999).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병국(2004). 국내외 진로교육의 현황 및 시사점.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2, 43-75.
- 신명호(2003).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주윤(2002). **중학생의 진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대, 임언,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 이지연(2005). 초·중등 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직업교육연구**, 24(3), 343-380.
- 이정근(1997). **진로지도의 실제**. 성원사.
- 이현림(2000). **교육심리와 진로지도**. 영남대학교 출판부.
- 장석민, 서혜경, 임재성, 김홍원, 하종덕(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
- 조윤희(2003).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아 효능감 및 진로흥미와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근출(2004).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변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준(1996). **진로선택의 길잡이**.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1898). **진학과 직업선택을 위한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안**.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 워크넷 <http://www.youthwork.go.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http://www.careernet.re.kr>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http://know.work.go.kr>

<Abstract>

The improvement plan of course education and the recognition about the course&voc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

Byeong-Ung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survey to identify how high school students think about career guidance and job and 2) to pursue effective career guidanc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first, most students have thought about their career. They chose friends as a counselor for their future. Among respondents, 39.84% of them said they did not consult with teachers. They said academic record is a stumbling block in choosing career.

Second, many students responded career guidance should start at 'Junior High school'. 76.56%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lack of career guidance resources. With respect to career, an important subject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social study, English, Korean, Science and Math.

Third, students recognized the face that aptitude and ability should be the utmost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career. They chose mass media as a main source to gain information relative to career, which accounted for 52.34% and 20.31% for teachers. In the case of students who have rather 'poor'home background, teachers were the main sources for career information, whose proportion was relatively high.

Forth, parents were the most influential people who helped students choose which high school to go(40.69%). In terms of scope of higher education, 65.63% said they wanted to graduate university. Students who has good academic records and good home environment wanted to pursue Master's or Doctor's degrees. 70.31% of respondents said they attended a high school just because they wanted to have a desired job.

Key words : course, vocation, course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 Correspondence, Teacher, Daejeon Beodeunae Middle School